

이순신 문학

이내원 (이순신 숭모인)

이순신 하면 무장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순신 장군은 또한 뛰어난 문인 이셨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시문, 서간, 논고, 독후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장군의 변칙이는 문재를 엿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순신 송시도 몇편 곁들여 보았습니다.

「이순신 문학」이라는 말은 짐짓 생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문학 태두이신 조운계 박사는 이미 1937년에 간행된 「조선시가사강」에서 이순신을 조선 중기의 대표적 시조문인으로 꼽은 바 있고 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은 공의 글을 평하여 “그 간곡한 충정이 주옥같이 그려져 있어 무문농묵(舞文弄墨 - 문장이나 희롱하고 글줄이나 꼬적거림)이나 하는 여간의 문필가 따위로는 도저히 비양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 문학성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8월에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께서 “이순신은 무인이 아니었다라면 시인이거나 학자가 되었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충무공의 글은 뒷날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신 것이 아니므로 공의 울분과 감상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순전히 개인 비망기로서의 「난중일기」와 공식 전황보고서인 「임진장초」 및 후대 정조임금 때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하면서 이순신의 개인 편지들을 수집해 편찬한 「서간첩」으로 삼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조는 본래 20여 수가 있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충무공의 시문은 공을 들여 일부러 쓰는 “작품”이 아니라 천부적 문재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비탄과 울분과 감상과 결의의 기록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며 그러므로 나랏일을 걱정하는 「우국의 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 |
|-------------|-----------------------|
| 閑山島 月明夜 上戍樓 |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
| 撫大刀 深愁時 |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
| 何處 一聲羌笛 更添愁 |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

이 시조는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우국시로 이은상 선생님께서 국역하셔서 너무나 널리 알려진 「한산도가」입니다. 그러나 2004년 가을 충무공 수련원 발행의 교재 「충무공 이순신」에서는 이은상 선생님의 번역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상당 부분 개작을

단행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칼 어루만지며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게 하나니

이 개역의 요지는 “큰 칼 옆에 차고”가 큰 칼 어루만지며”로 바뀌어 있는 점이며 그 이유는 그 원전이 撫大刀(큰 칼을 만지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자가 이미 2004년 4월의 1회 이순신 문학의 밤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하는 차에”를 좀 더 현대적인 “하는 적에”로, 또 이은상 선생의 “끊는다”는 자른다는 뜻으로 애간장과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애를 끊이다의 “끊게”로 수정한다는 취지인데 너무 문법적인 틀에 얽매여 시조로서의 운율을 잃어버린 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칼 매만지며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한가락 피리소리 그 시름을 더하는가

정도가 어떠할까 합니다. 오히려 「일성호가」라는 고어 투는 오늘의 한글세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끝 절은 원문이 更添愁(갱첨수-다시 근심을 더한다는 뜻)으로 ‘속을 끊이다’라는 표현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충무공의 두 자루 장검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동인문학상 수상작이며 KBS 이순신 드라마의 모본이 된 작가 김훈의 「칼의 노래」의 표제가 된 이순신 장군의 두 자루 장검은 현재 아산 현충사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칼날과 손잡이의 비율, 칼의 굵기와 부드러운 굽음이 빼어난 조형미를 이루는 이 한 쌍의 장검은 그 길이가 사람 키를 훨씬 넘는 197.5cm 나 됩니다. 이 장검은 실전용이 아니라 머리맡에 걸어 놓고 정신과 기개를 가다듬던 정신수양용으로 칼집의 뿔끈으로 보아 휴대 시에는 어깨에 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검의 손잡이 바로 위 칼날 옆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 검명을 한 쌍의 대구로 새겨 넣었는데 장군의 드높은 기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三尺誓天 山河動色 석자 장검을 들어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떠는 듯하고
一揮掃蕩 血染山河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이내원 역)

또 칼자루를 뽑아보면 거기에는 「갑오년 사월 일 태귀런 이무생이 만들다」라고 새겨져

있어 1594년 한산도 진중에서 만들었음을 알게 하니 공의 기록정신의 또 다른 개가입니다. 당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던 천민 대장장이의 이름을 새겨 놓게 한 공의 마음씀은 면면한 애민사상의 발로로 공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무공의 가장 널리 알려진 「한산도가」를 살펴보았으나 필자가 뽑은 우국 충혼시의 최고는 아래의 제목 없는 “무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간장을 저미는듯한 참혹한 느낌, 인제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공허로움,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절대적 통수권을 가지고 마음껏 싸움을 몰아치던 전설적 전략가들을 한없이 부러워만 해야 하는 상실감, 살신보국의 일념으로 그 책임을 넘치게 하셨음에도 오히려 부족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깊이를 모를 겸손이 우리를 숙연케 합니다.

무제시

| | |
|-------|-------------------|
| 蕭蕭風雨夜 | 비바람 부슬부슬 흩뿌리는 밤 |
| 耿耿不寐時 | 생각만 아물아물 잠 못 이루고 |
| 懷痛如摧膽 | 쓸개가 찢기는 듯 아픈 이 가슴 |
| 傷心似割肌 | 살을 에는 양 쓰린 이 마음 |
| 山河猶帶慘 | 강산은 참혹한 꼴 그냥 그대로 |
| 魚鳥亦吟悲 | 물고기 날새들도 슬피 우누나 |
| 國有蒼黃勢 | 나라는 갈팡질팡 어지럽건만 |
| 人無任轉危 | 바로 잡아 세울 이 아무도 없네 |
| 恢復思諸葛 | 제갈 량 중원 회복 어찌했던고 |
| 長驅慕子儀 | 몰아치던 곽자의 그리웁구나 |
| 經年防備策 | 몇 해를 원수막이 한다고 한 일 |
| 今作聖君欺 | 이제 와 돌아보니 넘만 속였네 |

(이은상 역)

다음 두 편의 시에서는 똑같이 마지막 두절에서 전쟁이 평정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사는 소박한 꿈을 그리고 있으나 끝내 이를 수 없는 바람이었음을 생각할 때 읽는 이의 가슴을 저밉니다.

진중에서 읊음

| | |
|-------|-------------------|
| 水國秋風夜 | 한 바다에 가을 바람 서늘한 밤 |
| 愀然獨坐危 | 하용 없이 홀로 앉아 생각하노니 |

太平復何日 어느 께나 이 나라 편안하리오
大亂屬茲時 지금은 큰 난리를 겪고 있다네

業是天人貶 공적은 사람마다 낮춰 보련만
名猶四海知 이름은 부질없이 세상이 아네.

邊憂如可定 변방의 근심을 평정한 뒤엔
應賦去來辭 도연명 귀거래사 나도 읊으리
(이은상 역)

무제(2)

北來消息杳無因 아득하다 북쪽 소식 들을 길 없네
皆髮孤臣恨不辰 외론 신하 때 못 탄 것 한이로구나

袖裡有韜摧勁敵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병법 있건만
胸中無策濟生民 가슴 속엔 백성 건질 방책이 없네

乾坤點黷霜凝甲 천지는 캄캄한데 갑옷엔 서리 엉키고
關海腥口血滂塵 산과 바다 비린 피가 티끌 적시네

待得華陽歸馬後 말을 풀어 화양으로 돌려보낸 뒤
幅巾還作枕溪人 복근 쓴 처사 되어 살아가리라
(이은상 역)

난중일기에는 거듭하는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시어 품계가 가선대부, 정헌대부로 차꾸 오르자 “공은 없는데 벼슬만 오른다.”라고 민망해하시는 순박한 겸손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위의 첫째 진중 시 셋째 절에 다시 표출되어 있고, 또 둘째 시 두 번째 절에는 급박한 전쟁을 수행하는 무장으로서 피난민 대책까지를 걱정해야 하는 진솔한 고뇌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임금께 올린 공의 전황보고서인 「임진장초」에는 피난민의 참상을 안타까워하시는 글줄이 여럿 눈에 띄입니다.

임진 전란 발발 다음해인 1593년 7월 15일 일기 끝은 4자 8운으로 되어있어 일기가 그대로 시를 이루고 있는데 번역해보면 대강 아래와 같이 되며 공의 문학성이 번뜩이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秋氣入海 가을 기운이 바다에 들어오니
客懷撩亂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다

獨坐蓬下 배뚝 아래 홀로 앉아 있으니
心緒極煩 마음이 몹시 번거로운데

月入船舷 달빛이 뱃전에 들어와
神氣清冷 정신이 오히려 맑아져서

寢不能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새에
鷄已鳴矣 어느덧 첫닭이 우는구나
(이내원 역)

아래의 「한산도의 밤」은 충무공의 흔치 않은 서정시로 이순신 시가의 최고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산도의 밤

水國秋光暮 물나라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驚寒雁陣高 추위에 놀란 기러기 떼 높이 떴구나
憂心輾轉夜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殘月照弓刀 새벽달 창 너머로 활과 칼을 비추네
(이은상 역 / 이내원 보역)

水國(수국)은 표현의 의도로 보아,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뜻하는 “한바다” 보다는 가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바다와 섬과 초목이 어우러진 물이 많은 나라. 즉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섬나라가 상상이 되는 시어이므로 “물나라”가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되며 雁陣(안진)은 여러 마리의 기러기가 진을 치듯이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이른 말이므로 그냥 “기러기”보다는 “기러기 떼”로, 弓刀(궁도)는 그 어순에 맞추어 “칼과 활”이 아니라 “활과 칼”로 바로 잡아 보았습니다.

선거이는 이순신 장군께서 함경도에서 조산보 만호와 녹둔도 둔전관을 하실 때 여진족을 상대로 함께 싸운 동료 무장으로서 이순신 장군께서 부당하게 북병사 이일에게 고문을 받으러 들어갈 때 이를 안타깝게 여겨 술이라도 한잔 들고 들어가라고 권하던 지기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막하로 들어와 한산도에서 둔전을 책임 맡고 함께 지내다가 육지로 진출되

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충무공께서는 이별시를 지어 아래와 같이 헤어짐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선거이 수사를 떠나보내면서

| | |
|-------|--------------------|
| 北去同勤苦 | 북쪽에 갔을 때도 같이 일하고 |
| 南來共死生 | 남쪽에 와 사생결단 같이 하였소. |
| 一杯今夜月 | 오늘 밤 이 달 아래 잔을 들고는 |
| 明日別離情 | 내일이면 우리 서로 나뉘겠구려. |

(이은상 역)

충무공의 난중일기 1596년 갑오년 24일자에는 선거이 병마사를 문병하고 돌아와 그 병이 위중하여 걱정된다는 대목이 있어 공의 다정다감한 우의를 엿보게 합니다.

오늘날의 어문교육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조리 있게 전개하는 논술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오늘에 모셔 내올 수만 있다면 장군께서는 세계적인 초일류 논술교사가 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두 해 뒤인 갑오년(1594년) 제2차 당항포 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직후인 3월 7일에 쓰신 <금토포문(禁討牌文)에 답하는 글>이라는 명문 중의 명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던 명나라 도사 담종인의 금토포문이란 이순신 수군에게 일본군 토벌전투를 그만 중지하라는 일종의 지시각서입니다. 전쟁의 당사국인 우리 조선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적당히 전쟁을 피해 보려는 담종인의 처사에 극도로 분개하셨고, 때마침 장군께서는 몸을 가누시지 못할 만큼 극심한 병고를 앓고 계시던 중이라 부득이 그 수하들에게 답서를 기초하라 하셨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무지 그 문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끝내는 쓰러질듯한 병고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키시어 스스로 답서를 기초하셨던 것입니다.

금토포문에 답하는 글월

“조선 신하 삼도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삼가 명나라 선유도사 대인 앞에 답서를 올리나이다. 왜적이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죄 없는 우리 백성을 죽이고, 또 서울을 침공하여 흉악한 짓들을 저지른 것이 말할 수 없으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의 통분함이 뱃속에 맺혀 이들 왜적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지 않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도사 대인의 타이르는 패문이 뜻밖에 진중에 이르러 받들어 두 번 세 번 읽어 보니 순순히

타이르신 말씀이 간절하고 꼭진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패문의 말씀 중에 ‘왜장들에게 트집을 일으키지 마라’ 하였는데 왜인들이 거제, 웅천, 김해, 동래 등지에 진을 치고 있는바 그곳이 모두 다 우리 땅이거늘 우리 더러 왜군의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라 하심은 무슨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속히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 하니 제 고장이란 또한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고, 또 트집을 일으킨 자는 우리가 아니요 왜적들입니다. 또한, 왜인들이란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흉악하고 교활한 적도들이 아직도 그 포악스런 행동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닷가에 진을 정비한 채 해가 지나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러 곳을 쳐들어와 살인하고 약탈하기를 전일보다 곱절이나 더하오니 병기를 거두어 바다를 건너 돌아가려는 뜻이 과연 어디 있다 하오리까.

이제 강화한다는 것은 실로 속임과 거짓밖에 아니옵니다. 그러나 대인의 뜻을 감히 여기기 어려워 잠깐 두고 보려 하오며, 또 그대로 우리 임금께 아뢰려 하오니 대인은 이 뜻을 널리 살피시어 놈들에게 역천(逆天)과 순천(順天)의 도리가 무엇임을 알게 하시오면 천만다행이겠습시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답서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어 참으로 정중하면서도 자주국민으로서 몇몇한 자세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대국의 위세만을 믿고 조선의 백성을 깔보며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던 명나라 장수들을 부끄럽기 짝이없게 만든 천하 명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신 3월 7일의 일기는 “몸이 극도로 불편하여 움직이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 답서를 지어 보내라 하였더니 지어놓은 글이 말이 아니다. 또 수사 원균이 손의감을 시켜 작성했는데도 그것도 못마땅하다. 내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 초를 잡고, 정사립을 시켜 써 보내게 했다.”고 쓰여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외교문서 작성에 사력을 다하신 공의 사려 깊음을 절감하게 합니다.

또 장군께서는 종전 한해전인 정유일기 잡기사 중에 독송사(讀宋史- 송나라 역사를 읽고)라는 독후감을 친필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강은 가려는가, 가면 또 어디로 가려는가. 무릇 신하된 자로 임금을 섬김에는 죽음이 있을 뿐, 다른 길이 없다. 이때야말로 종사의 위태로움이 마치 터럭 한 가닥으로 천근을 달아 올림과 같아 정히 남의 신하된 자로서는 몸을 버려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 간다는 말은 진실로 마음에 생각도 못 낼 말이거늘 하물며 어찌 입밖에 낼 수 있을까 보나, 그러면 내가 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꼬, 몸을 헐어 피로써 울며, 간담을 열어젖히고서, 사세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는 화친할 도리가 없음을 밝혀 말할 것이요. 그 말이 그대로 안된다면 거기 이어 죽을 것이요, 또 그럴 수도 없다면 우선 화친하려는 계획을 따라 몸을 그 속에 던져 이것저것 맞추어 가며 죽음 속에서 살길을 구하면 혹시 만일이라도 나라를 건질 도리가 있게 될 것이거늘, 강의 계획은 이런 데서 내지 않고 그저

가려고만 했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된 자로서 몸을 바쳐 임금을 섬기는 의리라 할까 보냐」

이 글은 송나라 재상 이강(李綱)이 금나라의 침공에 대하여 맞서 싸우자는 자기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승이 된 지 70여 일 만에 사직하고 시골로 가버린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논고입니다. 정유년은 바로 통제사께서 구속되셨던 해이며 온갖 시련 속에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는 장군의 드높은 기개와 넘치는 나라 사랑을 뜨거운 맥박처럼 실감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친구나 친척과 나눈 개인 편지에서해 드러내신 글솜씨와 마음 쓰심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곡 박경신은 충무공보다는 15살 아래로 문과에 급제한 후 참판에 오르고 경상감사를 지낸 이인데, 공과는 마음을 나누는 지기시간 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곡에게 보내는 글월

『시운이 불행하여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원통합니다..... 형께서 그 훌륭한 재주와 충성으로 이 혼탁한 속에서 떨쳐 일어선다면 모든 사람이 소문을 듣고 기꺼이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국사가 바로 잡히고 국운이 중흥된다면 국민이 반성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참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외람되게 은총을 입어 특별히 변방의 소임을 맡았으나 책임의 무거운 것이 마치 가냘픈 모기가 산을 진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께서는 신출귀몰한 지혜와 천지라도 뒤흔들만한 힘이 있으시니..... 그 훌륭한 재주를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데, 저는 이미 지혜와 생각이 메말라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재주와 용기가 없어 전쟁 뒤의 티끌에나 따라다닐 형편이오니.....

홍적을 일소하고 왕실을 중흥시켜 우리나라의 임금이 백성이 성세를 누리게 되면 저와 같은 무용지물은 물러나서 옛날같이 낚시질이나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어 친구에 대한 정중하면서도 간곡한 믿음을 설파하면서도 나랏일에 나서지 않음을 곡진하게 나무라는 애국충정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냘픈 모기가 산을 진 것 같다.”라는 표현은 백 마디 군말이 필요없는 절절한 책임감의 표기라 하겠습니다.

정랑 현덕승은 공의 외가 쪽 친척으로 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다음 편지는 충무공 사후 약 300년간 현씨 문중에 보관되어 오던 것을 약 100여 년 전에 충무공 종가로 옮겨 보관케 되었다고 합니다.

정량 현덕승에게 보내는 글

『……산이 높아 하늘이 멀지 아니하고 물이 맑아 신선을 고대 만날 듯하다 하시니 참으로 느낍니다.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이 새로운 봄철과 단풍이 물들고 국화가 향기로운 가을 철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요. 나와 같은 속된 관리는 그저 분주하기만 하여 함께 구경할 길이 없으니 전일에 저에게 “신선의 연분이 없다.”라고 조롱 하시던 그 말씀이 참으로 적합한 평론이었습니다. 과연 우습습니다.』

자기 자신은 오직 우국 일념에 묻혀 있으면서도 신선처럼 떠돌아다니는 친구를 밝은 우스개로 맞이하는 공의 마음 쓰심은 어쩐지 안쓰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순신 전몰 후 무수한 재사, 명사가 공의 공적을 기리는 찬가와 시를 지었는데 그 중 몇편을 골라 봅니다. 공의 장례행렬에 만장을 쓴 이는 공보다 18살 아래로 문명이 높았던 실학자 이취광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개 떼들을 놀래이고
큰 공로 천하에 들렸네
왜적들 밤 달 아래 도망치고
장수별 새벽 바다에 떨어졌네

파도는 영웅의 한을 풀지 못하고
공로만 역사에 적혔네
오늘에 사나이 몇 사람이뇨
슬프다 충의장군 저님 뿐일레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은 충무공의 세 살 맏이 어릴 때 친구로 공을 전라좌수사에 역천하고 임진 전쟁을 슬기롭게 다스린 명재상인데 이순신 전몰 한 달 전에 서인들의 모함으로 파직 되고 이순신보다 9년을 더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 전라좌수영 여수에 있는 이순신의 사당 충민사에 들려 한 서린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이 통제를 슬퍼함

한산도 고금도
한바다에 두어 점 푸르렀구나
그날 백번 남아 싸운 이 장군
외 손으로 하늘을 떠받들었네

고래들을 다 무찔러 피바다 되고
물귀신 소굴을 불로 태웠네

공로 높아 참소 모함 못 면했던가
새깃 같은 목숨이라 무얼 아끼랴
그대 못 보았나 현산 언덕 한 조각 비석
어진이 가신 뒤에 모두 울던 일
슬프다 충민사 두어 간 사당

비바람 해마다……
갯가에 사는 이들 흐느껴 우네……

산서 조경남은 충무공보다 25살 아래로 임진왜란 중에는 충무공 막하에 들어와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난중잡록』이라는 57년간의 귀중한 기록을 남긴 선비인데 “이 충무를 슬퍼함”이라는 가슴 저린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육 년을 한산에서 군대 이끌고
거북선 몇 번이나 오랑캐 쳤나

죄 없이 불러 가 옥에 갇히고
홀몸으로 내려와 다시 싸웠네

벽파진 세 번 싸움 절개 다하고
하루아침 남해에서 순국했나니

기 두르고 북을 치며 맹세하던 말
지금도 남아 들려 눈물 흐르네

다음은 오늘날의 김동직 시조시인의 “님의 현신”이라는 1998년의 순국 400주년 기념 시조입니다.

모반의 날이 새어 산도 물도 떨던 그날
백의의 종군 천 리 어인 발을 떼셨을까
한산섬 거센 물살이 님의 뉘를 행굽니다.

풀 이슬에 삶을 갈던 백성을 생각하며
하늘 땅 휘어잡고 울부짖던 그 함성
현충사 넓은 뜨락에 가득 고여 흐릅니다.

그리움 하나 없이 함선 위에 바친 생애
자국마다 고인 충절 하늘에 와 닿았거니
이 한밤 고요를 깨고 현신하는 장군님

가신 지 4백 년에 님이 다시 찾아 와서
주셨으면 안된다고 다시 세워나가라네
아무도 가누지 못할 눈시울을 적십니다

필자는 2005년 4월 충무공 탄신 460주년 기념 자유시조를 「님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일간지와 문학저널 5월호를 통하여 발표한바 있어서 곁들여 봅니다.

한산의 높은 기개
칠천 한이 한 더 되어

흰 옷 속에 감춘 절개
명량을 짊었구나

울돌목 물 울음은
님의 오열 닦았는데

노랑의 새벽 화광이
고운 넋을 사르네

- 끝 -